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0호【루게 제24463호】주제103(2014)년 2월 19일(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공 개 서 한 전 국 의 모 든 선 거 자 들 에 게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심심드높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과시하고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 전체 선거자들이 우리 당에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와 의사를 담아 나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었으며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니다.

나는 전체 선거자들이 나에게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충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대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공화국정권은 이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의 역사를 빛내어가고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 평도자와 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를 잊지 않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

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들이 세상만복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강성번영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어있으므로 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넓은 길이 펼쳐져있으며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숭고한 자각과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김 정 은

주제 103(2014)년 2월 18일

### 사 설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 건설위업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수령의 혁명 사상,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발전과 자랑 찬 승리로 수놓아지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 이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있어 전진하게 되었고 당건설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당의 완성된 투쟁강령을 마땅히 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혁명적진군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철석같은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즐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혁명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눈부신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역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주의를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것은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일제기 농단산마루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한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기 위하여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불문 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을 벌려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되고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비상

히 발전풍부화되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 장군님처럼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체계화하고 시대와 력사의 앞길을 밝히는 고귀한 사상리론적기치로 빛나고 그런 위인은 없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어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힘있게 추진되었다. 김일성주의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파 건설의 모든 사업을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평도는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을 위하여 한복속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파들의 대부대가 자라났으며 우리 조국땅우에는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불패의 일심단결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우리 인민이 누리는 높은 존엄과 자주적삶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의 고귀한 전위들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어 김일성주의의 전일적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높이신것은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는 곧 선군평도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권은 력사에 류례없는 반체대전선에서의 변천전승을 안아왔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선군사상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21세기의 지도적지침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 조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날구쳐오르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솟아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류사상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사상리론적위업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정치적선전지능으로 우리 혁명파 자주위업의 전도를 내다보시며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는 력사적과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제 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의 총극적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히 틀어쥐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영광의 세기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위업실현의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수심상상 혁명투쟁을 평도해오시면서 혁명파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므로 사상개조의 훌륭한 사상정신적제부를 마련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는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더욱 귀중한 교과서이며 거울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가 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파적품도를 닮은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일성동지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면 그것이 곧 사상적일체화의 승리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으로, 우리 일심단결의 억척분면의 초석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것이 전 인민적인 사상의지로 되고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당과 온 사회를 사상정신적결제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때 우리 혁명의 력사적위업, 사상적 일체화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혁명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창시와 심화발전과정은 곧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자기 운

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도,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한다는 총대철학도, 사회주의는 자기면 승리이고 버려던 죽을이라는 철리도 장구하고도 준엄한 혁명실천속에서 마련된것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우리 인민을 강한 자주정신의 체현자로 키우는 영양소이고 총대혁명승리의 역사를 즐기차게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활력소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불패의 부류로,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도록 하는 사상적무기이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존엄과 강대성, 통성번영의 역년기들이라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백년대계의 전략이다. 우리는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동력이다.

지금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확신있게 이끌어가고있다.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수도 있다. 우리가 당의 평도 따라 온갖 시련을 맞받아싸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리상과 포부를 지니고 어떻게 살며 투쟁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원칙과 요구,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인민군대의 선구자적역할을 높이고 군민동무작전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일군들의 사업적품과 일본색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져있었듯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미래가 펼쳐져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

하고 세련된 평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희망찬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평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승리하고 번영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년대로 빛날것이라는것이 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드림같은 신념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진군로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며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혁명파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평도따라 주체혁명, 선군혁명, 한결같은 한결같은 걸어나갈 철석같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 평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정책이 제시되면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하는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일심단결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실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이다. 일심 단결이 없으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고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한다.《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단결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생산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오늘의 총

진군길에서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데서 누구보다 앞장에 서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일군들이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많이 땀과 목숨을 흘려야 한다. 자기의 뼈를 짊어지라도 인민생활을 높이겠다는 비상한 각오,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투쟁정신,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풍,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이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의를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함으로써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있는 올해에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이 오늘의 총진군에서 선봉적,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여 당안에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고 당대회의 정치적사상적결정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 사상선, 선전선, 선전선들의 원바람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전당! 선전선,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온 나라에 우리 당의 목소리가 함창게 울려 퍼지게 하고 모든 전투투쟁이 일치하는 기상과 양양된 분위기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지도사상이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평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여세를 쉼없이 나가자.

# 주체혁명의 진군길우에 올라가는 2월의 선언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한껏 달아오른 태양민족의 다함없는 경모의 열기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 업적에 대한 정승으로 더욱 승화되고있는 내 조국의 2월.

오늘도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우에 올라타는 역사의 메아리가 있다.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강명선포!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당과 혁명, 시대와 역사에 이룩하신 업적중에서도 가장 불멸할 업적이다.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음성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들을 울려주고있다.

40년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활달하신 걸음으로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장의 연단에 나서셨다.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은 그칠줄 모르는 박수와 폭풍같은 환호속에 해돋는 바다처럼 설렘이였다.

백두광야를 주름잡으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어버이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을 감격속에 우러르며 진국각지에서 모여온 당사상일군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윽하여 젊음에 넘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걱정어 설메이는 장내를 영채로운 눈길로 굽어보시며 짜뻑짜뻑 울리는 목소리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당사상사업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함에 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구절구절이 심오한 진리로 짙고 명징하며 그대도 고전적명제와 정칙화되고있다.

부피두터운 원고를 보지 않고서도 적절한 실례까지 들어가시며 모두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야기하시는 그의 말씀이여 참가자들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경청하였다.

백과 백박이든 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계속되었다.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습

니다. ...

폭풍지는 환호, 크나큰 격정의 설렘,

그것은 분명 지심깊이에서 수수천년 뚫어낸진리용암이 터치는 화산의 분출과도 같은 것이였다. 온 지구를 통째로 뒤흔드는 격동적인 력사의 순간이였다. 격정에 휩싸여있는 참가자들을 굽어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

정식화는 간명하였으나 여기에는 새로운 철학적전선에 기초하여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우리시대 지도사상의 진보와 선행한 동로제국의 혁명리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심오히 밝혀져있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심금을 완전히 울려잡았다.

그가운데서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의 감격과 흥분은 류달리 컸다. (2월의 선언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셨던가!) 일군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추억들이 파도처럼 되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였다. 그때 우리 당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온 어느 나라의 당대표단 단장은 주체적인 사상리론들로 일관된 어버이수령님의 보고를 청취하고 무릎을 쳤다. 그는 너무나 감동되어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이야말로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의이다. 아니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해야 더 정확할것이다.》라고 격찬해주시었다. 지난날 선행리론만을 절대적인것으로 숭상하던 사람들이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63(1974)년 2월 19일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는것을 말해준 하나의 일화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공인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만 부를수 없다고 단정하시였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장구 주체사상의 역사적지위를 밝혀내실 결심을 품게 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되었다.

밀물처럼 차오르는 추억가운데는 1970년대 초 어느날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는 밤 일군들과 함께 대동강만 거닐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 계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다 하시면서 절절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주체라는 말은 세계의 모든 사람

들이 다 아는 조선말이다. 가장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잡는 세계공용어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부를 때가 이미 성숙되었다. ...

이처럼 시대의 요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일차적 지향과 념원을 명철하게 헤아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침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는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것이였다.

사실로 2월의 선언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들을 힘있게 추동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해 지신께서는 정말 훌륭한 후계자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나의 혁명사상을 이미 오백전에 주체

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다고, 나의 혁명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로 정립한것도 만짐이며 때 구성체계를 론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짐이라고, 김정일동지는 회세의 철학가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신것입니다.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체화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종사사상으로 위대한 선군시대를 펼치신 나날에 2월의 선언은 우리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게 해준 불멸의 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헤쳐가신 선군혁명천리마길은 2월의 선언을 현실로 꽃피워 천만군민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키우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부강번영의 벅찬 승결과 비약하게 한 력사의 나날들이였다.

김일성주의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져 풍만한 결실을 맺게 하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였다.

그이께서 김일성주의의 심화발전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보나 시대와 혁명의 요구로 보나 김일성주의는 마땅히 어버이수령님의 존함뿐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도 결부되어 불리워져야 할 것이였다.

하지만 한없이 걸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일주의는 아무리 파괴되어도 김일성주의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오직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키도록 하시였다.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들어선 우리 당과 혁명의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불리워지고나갈것을 요

구하게 되었다.

주제 101(2012)년 4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총대종사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시므로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비상이 높이지였으며 혁명실전에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일성주의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증후화시키신 장군님의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이미전부터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리웠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하여왔다고 강조 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그 독창성과 우월성,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류의 심장을 전세계를 울려잡고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온것처럼 우리 천만군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들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은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재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언척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2월의 선언과 더불어 영원 불멸할것이다.

자그마한 시대, 주체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영원하듯이 2월의 선언이 일으킨 총력적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거대한 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2월의 선언은 세월의 언덕 넘어 오늘도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우에 빛날치고있다.

본사기자 박 일 민  
본사기자 리 금 분

## 사상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시고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회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회의준비사업으로부터 전원회의보고 작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회의가 높은 수령사상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안에 수령님의 사상체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번이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정당적으로 쓰게 되었는데 유일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유일이라는 말은 수령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의 통일 단계를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핵이 없는 불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이 없는 단

결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은 오직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회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역사적전환점을 마련한 회의로 되었다.

그러시면서 조선혁명은 신념으로 개척되고 신념으로 전진하며 신념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혁명은 말이나 연설로 하는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한다고, 혁명이자 신념이고 신념이자 혁명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크나큰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패자광성리운 일이라고 추억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혁명적신념이 없이는 존엄한 혁명의 길에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승리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당당겨울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본연의 의지였다.

**깊이 관심하신 문제**

어느때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을 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맡고나갈 혁명의 후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가장 힘있는 력량이라고, 청년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조국과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무거운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리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큰 힘을 넣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

에게 1990년대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한 후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좋다고,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혁명적이고 건전한 청년들을 가지고있지 못하다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앉아있거나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잠시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청년교양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들을 미래에 떠맡고나갈 선군시대의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시려는 승고한 뜻이 깃들어있었다.

채 히 성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마지 어느 휴양소에 온것 같다고, 소문없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며 초급당비서가 일을 많이 하겠다고 과분한 평가도 해주셨다.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한 저의 당사업성과를 두고 지적해주시며 분내치는 평가를 주시는 어버이장군님 앞에서 저는 송구스러워 몸뚱이를 물었다.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 바라는 리상적인 당선전일군이 되리시!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중으로!”

이것은 저의 심장에서 분출한 충성의 맹세, 신념의 맹세였다. 전천참가공장에서 당사업을 하던 중 당의 맹세를 지켜 도당위원회에서 한계 군을 담당하였을 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며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대회에도 여러번 참가하게 되었다.

전천참가공장에서 당사업을 하던 중 당의 맹세를 지켜 도당위원회에서 한계 군을 담당하였을 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며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대회에도 여러번 참가하게 되었다.

전천참가공장에서 당사업을 하던 중 당의 맹세를 지켜 도당위원회에서 한계 군을 담당하였을 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며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대회에도 여러번 참가하게 되었다.

주제 96(2007)년 8월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강명선포하시였다. 4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선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김질할수록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출판보급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고 싶게 출판보급사업에 이르러까지 세심히 보살피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가슴속까지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에 이끌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사상정신을 굳건히 다져야 사회주의의 공고발전기반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출판보급사업에 힘써야 한다.》

주제 93(2004)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출판보급사업정책에 대하여 로해하시였다. 그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판보급사업에서 일정한 애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지금 당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급부문 기자, 편집원들, 인쇄부문 종업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날신문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품을 들여 적어낸 신문이 나라의 곳곳에 제때에 가닿도록 전당, 전국적으로 출판물, 우편물수송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이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을 제때에 받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 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적으로 출판물, 우편물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워 인민들이 출판물을 보

는데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조건보장사업과 함께 해당 일군들이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도록 장악지도사업을 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와 함께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출판물보급기반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는 문제로부터 생활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당의 목소리를 인민들에게 제때 전달하기 위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깊이 깨닫게 된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출판물보급사업을 적극 꾀고있었으며 물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중앙우편출판물체공국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보를 비롯한 당적출판물들을 전국각지에 신속히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그들은 우리 당의 은정이 깃든 우편통신차들을 잘 관리하고 자동차를 높여 외진 고장에 이를기 위해 출판물들을 자체에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전국의 시, 군당책일군들과 행정경제기관, 인민보안기관의 일군들도 출판물체공사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안다운 립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자신들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출판물보급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리워지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출판보급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출판물보급사업에 이르러까지 깊이 관심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당출판보급도들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건설에 힘있게 떠밀어주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전 광 남

## 언제나 영광의 그날을 안고 살리

당과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였으나 하는 흥분으로 진정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사상사업은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실현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혁명적신념이 없이는 존엄한 혁명의 길에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승리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사업을 하는 우리 선전일군들은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항구적인 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대를 이어 김일성주의를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일수 있게끔 진심으로 모든것을 다 바쳐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회에 참가

한 모두의 심장은 더욱더 격동되었다.

열정에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도당위원회에서 사상사업을 갖 시작할 제때에도, 오랜 당사상일군들에게도 아니 대회참가자들 모두에게 귀중한 진리, 참된 교과서로 새겨졌기때문이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있게 발발해 대하여,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사상일군들에게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는 때 온 장내는 크나큰 환희와 격정의 파도로 물결쳤다.

영광의 그날은 당일군으로서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수 없는 날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당일군으로

수십년간 당사업에 해오는 저의 가슴속에는 40년전 2월 19일, 뜻깊은 력사의 그날이 깊이 새겨져 있다.

저는 영광의 그날 젊음에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대회에 참가하는 행운중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머슴군의 아들로 태어난 이 몸을 따사로운 환풍에 안아 선동으로 키워 준것만도 더없이 고마운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여 그러처럼 빛고실던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으니 그때의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첫시작부터 알기 쉽게 우리 사상일군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때 저는 정말 또 한번의 절세위인을 우리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사상일군들에게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는 때 온 장내는 크나큰 환희와 격정의 파도로 물결쳤다.

영광의 그날은 당일군으로서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수 없는 날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당일군으로

수십년간 당사업에 해오는 저의 가슴속에는 40년전 2월 19일, 뜻깊은 력사의 그날이 깊이 새겨져 있다.

저는 영광의 그날 젊음에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대회에 참가하는 행운중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머슴군의 아들로 태어난 이 몸을 따사로운 환풍에 안아 선동으로 키워 준것만도 더없이 고마운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여 그러처럼 빛고실던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으니 그때의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첫시작부터 알기 쉽게 우리 사상일군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때 저는 정말 또 한번의 절세위인을 우리

수십년간 당사업에 해오는 저의 가슴속에는 40년전 2월 19일, 뜻깊은 력사의 그날이 깊이 새겨져 있다.

저는 영광의 그날 젊음에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대회에 참가하는 행운중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머슴군의 아들로 태어난 이 몸을 따사로운 환풍에 안아 선동으로 키워 준것만도 더없이 고마운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여 그러처럼 빛고실던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으니 그때의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첫시작부터 알기 쉽게 우리 사상일군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때 저는 정말 또 한번의 절세위인을 우리





#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여 더욱 붉게 피어난 김정일화

## 불멸의 꽃바다에 차넘치는 결사수호의 의지

경애하는 김정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변 불후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시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시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시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국가안정보위부전시대에서

어엿은 국가안정보위부전시대에도 부대장병들의 투철한 사상정신과 지향, 불타는 맹세가 잘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700여명의 붉고 붉은 김정일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전시대중심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백두산일고향집과 정일봉이, 그 옷부분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좌우부분에는 선군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조선로동당기와 최고사령관기 그리고 아메바부대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생동하게 형성되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의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대아래부분의 좌우에 형성되어있는 공화국

기와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는 글발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넘쳐 영웅적전군을 다그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그런가하면 특색있는 축포형상은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두개의 원형회전장치의 돌림면들이 새겨넣은 힘있는 글발들은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불타는 강국으로 위용번치고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해나갈 무적전사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다운 태양의 꽃들에도, 장식물 하나하나에도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보위전사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과 자성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부대에서는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주고 불멸의 꽃을 과학기술적으로 더 잘 피우기 위하여 자부심을 안고 백두산일고향집에서 그토록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투사들로 자라나 보위의 장군을 역세게 틀어잡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믿음직하게 보위해가고 있는 부대장병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모습을 뜨겁게 전하여주고 있는 국가안정보위부전시대, 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공판리병들두는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부대장병들은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의 신념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산일고향집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수령님사용의 총대머리 공판리병들이 맡아갈 불타는 맹세로 넘쳐있습니다.》

순결한 마음...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대의 온실에는 하나하나도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보위전사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과 자성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이렇듯 아버지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걸 오직 한마음으로 가슴 붙들고있는 부대장병들의 심장속에 뿌리내리고 활짝 피어날 붉고 붉은 김정일화에서 그토록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투사들로 자라나 보위의 장군을 역세게 틀어잡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믿음직하게 보위해가고 있는 부대장병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모습을 뜨겁게 전하여주고 있는 국가안정보위부전시대, 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공판리병들두는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부대장병들은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의 신념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산일고향집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수령님사용의 총대머리 공판리병들이 맡아갈 불타는 맹세로 넘쳐있습니다.》

##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가리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에서

중심에 제일조선인운동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사신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라원형으로 펼쳐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총련동포들의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담고있는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아버지장군님의 넘원, 인민의 리상이 꽃피어나고있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 전시대에 특색있게 형성된것이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기고승차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수들의 모험, 철보산의 천연바위를 그대로 옮겨놓은듯한 바위위형과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물라골에서 판에서 제주를 부리는 곰들이 들을 형성한 분수조각, 그 모든것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영

상된 전시대를 돌아보는 참관자들에게 해설을 하던 김주순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제가 조국으로 떠나올 때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만 굳게 믿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뜻하여 걸어갈 자신들의 마음속진정을 조국인민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눈부신게 변모된 조국의 현실을 전시대에 반영하면서 정말 받아안은 충격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빛나

는 전변을 실지 목격하면서 저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한성원당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성원당에 조국에 보편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의 힘찬 전진에 발맞추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총련의 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애국열의를 다시금 뜨겁게 느낄수 있다.

글 쓴사람 백성근 사진 쓴사람 리충성



## 영원한 태양의 빛발 따라

불타는 맹세

농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은 이번 축전장에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총정의 맹세를 담은 특색있는 전시대를 펼치였다.

축전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 성에서는 여러건의 전시대현상도인들에 대한 집계적협의를 진행하였다. 어느 도안이나 다 특색있고 깊은 내용을 담고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토의 끝에 올해 땅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맹세가 비껴가는 전시대현상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열린 불멸의 꽃축전을 의의있게 장식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영애와 긍지들이 아버지장군님의 유훈,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신념과 의지를 역세게 가다듬고있는 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열의는 얼마나 불같은것인가.

시대의 전력을 총동원 구가하고 있는 수산생산전시대,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려는 어로공들의 불타는 열의를 어장으로 불타는 고기메모형으로 형성한것도 특색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워 포구마대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가기 위한 수산부문의 일군들의 드높은 결의도 새차게 메아리치는 전시대이다.

《우리는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필승불패의 존엄과 기상을 단방에 힘있게 펼치는 내 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해나갈것입니다.》

아버지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무적전군의 총대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무궁토록 만발할것이다.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린다

200여명의 김정일화와 수많은 보조화조로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대원수님을 형성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태양으로 영생화한 백두산대국의 앞길을 뜨겁게 축복해주시는

수령님들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수산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투철한 의지에 높이 울려 퍼질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벌써부터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한 격정에 휩싸이게 한다.

## 조국을 멀리 떠나있어도

조선래편도위원회 일군의 이야기

이번 축전장에 펼쳐져있는 조선래편도위원회전시대에는 우리 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태연도모국으로 더욱 빛내여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드러내었다.

전시대앞에서 우리와 만난 조선래편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선동무는 축전준비사업에 불같은 열정을 바친 위원회일군들과 정무원들,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 전시대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나가 민족의 자랑인 태연도를 널리 보급하고있는 태연도사범들의 마음도 뜨겁게 깃들여 있습니다. 조국에서 제18차 김정일화축전이 열리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경정을 금치 못하면서 저저마다 축전준비사업에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우고 전시대를 보다 훌륭하게 형성하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쳐서 태연도사범들의 소명을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없다.

조국을 멀리 떠나있어도 심장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안고 사는 이렇듯 고결한 마음과 마음들을 자랑분으로 하여 붉게 피어난 태양의 꽃들이어서 더욱 깊은 감동을 지어내는 전시대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경사로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고있는 불멸의 꽃

## 전시대에 비껴 인민의 한마음

축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김정일화만발한 태양축전을 온 세상에 빛내어갈 우리 인민의 불타는 열의가 새차게 맥박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뜻깊은 축전이다.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었다. 참관자들은 수도의 꽃들에 대종봉사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문명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피어나는 마음을 담아 불멸의 꽃들로 태양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중심에는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대원수님을 형성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돌조각들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물, 조화롭게 배치한 것으로 하여 전시대에는 그야말로 봄의 훈향이 한껏 넘치는 듯 하였다.

업원들의 불타는 맹세도 비껴가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어머니의 고마운 해택이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모든의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각인된 맹세입니다.

글 쓴사람 리충성 사진 쓴사람 전성남

## 언제나 변함없을 충정

축전장에 펼쳐진 많은 전시대들이 다 그러하듯처럼 아버지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마음과 더불어 불타는 총정의 맹세는 인민봉사총구전시대에도 넘쳐흘렀다.

태양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백두산일고향집과 정일봉, 뜻깊은 2월의 명절을 경축하며 첫입봉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축포와 함께 유류관과 청류관을 훌륭히 형성한 전시대는 참관자들의 가슴속에 한평생을 바치시어 이 땅위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 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이

참관자들은 수도의 꽃들에 대종봉사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문명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끝수루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애국총정의 한마음을 다 바쳐갈 참관자들의 불타는 열의가 새차게 맥박치고있는 전시대에 만발한 불멸의 꽃들은 더더욱 붉은 빛을 뿌리는것만 같았다.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었다. 참관자들은 수도의 꽃들에 대종봉사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문명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끝수루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애국총정의 한마음을 다 바쳐갈 참관자들의 불타는 열의가 새차게 맥박치고있는 전시대에 만발한 불멸의 꽃들은 더더욱 붉은 빛을 뿌리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겠다.》

## 당의 해택이 더 잘 가닿게

불멸의 꽃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하는 전시대들가운데는 봉

축전장에 펼쳐진 많은 전시대들이 다 그러하듯처럼 아버지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마음과 더불어 불타는 총정의 맹세는 인민봉사총구전시대에도 넘쳐흘렀다.

태양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백두산일고향집과 정일봉, 뜻깊은 2월의 명절을 경축하며 첫입봉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축포와 함께 유류관과 청류관을 훌륭히 형성한 전시대는 참관자들의 가슴속에 한평생을 바치시어 이 땅위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 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이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었다. 참관자들은 수도의 꽃들에 대종봉사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문명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끝수루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애국총정의 한마음을 다 바쳐갈 참관자들의 불타는 열의가 새차게 맥박치고있는 전시대에 만발한 불멸의 꽃들은 더더욱 붉은 빛을 뿌리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겠다.》

##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온 75일간

### 평안북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의료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품모입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이었다. 도인민병원에 못하지 않게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실려왔다. 그들은 조선인민군 초기 부상사관 최정성동무와 그의 아내 강숙정동무였다. 전신 45%의 화상을 입은 안해의 상태가 더욱 위급하였다.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 열혈과 여러가지 약물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들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환자는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후 내치체에 걸쳐 진행된 피부이식수술에서 이곳 의료일군들의 부부장, 관계부서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꾸마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는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서 절세위인들께서 채택하신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꾸마공화국 특명전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강성국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박관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서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심한 화상으로 정신을 잃은 그들의 생명은 분초를 다투고있었다. 일반의과 과장 최병주동무는 성스러운 조국보위의 길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초기부부사관과 그의 안해를 구조성 소생시키기 위하여 걸음을 굳게 가지였다.

원장 김병일, 기술부원장 리종일, 과장 최병주, 신의주의학대학 외과과총론과장 리주성, 담담간호원들인 유계금, 과장 최병주 등 의료일군들이 지체없이 구급소생전투에 들어갔다.

치료를 계속한 의사와 간호원들은 환자의 머리카락을 떠나지 않았고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병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환자들에게 갖가지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며 그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75일간의 낮과 밤, 온 의료집단이 우리 당이 이끄는 군인 가족을 위하여 불같은 정성을 기울여왔다.

그날 1차 피부이식수술시 환자를 위해 자기의 피부를 바친 사람들의 수는 160여명이나 되었다.

과장 최병주동무를 비롯한 일반의과 의사와 간호원들은 환자들의 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피부이식수술은 군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하기로 하였다.

최세의 천출위인인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심을 보여주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제18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한 해외동포들이 격정을 금치 못하며 경탄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중국 단둥성민무역유환공사 리사장 리영호는 이번 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화상성소상에 있는 환자의 의식을 회복하는것이였다. 원장과 기술부원장은 일반의과 의료일군들과 함께 환자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화상성체열증을 막기 위한 방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 열혈과 여러가지 약물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들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환자는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치료를 계속한 의사와 간호원들은 환자의 머리카락을 떠나지 않았고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병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환자들에게 갖가지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며 그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날 1차 피부이식수술시 환자를 위해 자기의 피부를 바친 사람들의 수는 160여명이나 되었다.

과장 최병주동무를 비롯한 일반의과 의사와 간호원들은 환자들의 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피부이식수술은 군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겠다.》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꾸마북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일없이 강화발전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조선인민을 승리해로 령도하시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하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꾸마동지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을 위대한 김정일화축전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남주현은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하면서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미제의 분쇄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형제적 꾸마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꾸마대사관 최정성동무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선과 꾸마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미제의 분쇄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형제적 꾸마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꾸마대사관 최정성동무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선과 꾸마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 태양의 꽃은 민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만발할 것이다

해외 동포들의 반향

우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남주현은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하면서

우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남주현은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하면서

우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남주현은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하면서

우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남주현은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하면서

우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 대표단 단장 남주현은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들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하면서

# 대결상태해소는 통일의 길을 여는 출발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드림없는 립장과 의지는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동족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할수 없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동족사이의 반목과 불신의 력사, 서로 송부리를 맞댄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겨레의 숙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북남관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한다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일시적인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써 반만년 역사를 가진 동족사이의 관계로 전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갈라져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형성되면서 생겨났고 분열의 력사가 깊어짐에 따라 더욱 격화되어왔다. 대결상태는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아왔다.

지나온 북남관계역사가 보여주듯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다. 이 땅에 전쟁의 불길이 터지면 엄청난 핵대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그것을 과연 누가 피할수 있었는가,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으며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이제 더 이상

연계 전쟁을 가져올지 모를 대결을 지속시킨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비극이고 수치이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기대할수 없다. 대결상태를 해소할 때에만이 북과 남사이에서 서로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해나갈수 있다.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대결상태의 해소는 북남관계개선의 조건과 민족성원들사이의 혈연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북남대결은 곧 정치군사적대결이다. 북과 남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 적대적으로 대결할 그 어떤 내적요인을 가지고있지 않다. 북과 남의 대결은 조선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는 외세에 의해 조장된것이다. 6. 15 통일시대가 열리어 조선반도에 《우리는 하나!》의 합성이 차남치고 통일의 파도가 일어난것은 우리 겨레는 그 어떤 마음속양심이 나 양심도 없는 한혈육이라는것을 실증해 주었다.

북남대결상태의 해소는 민족과 시대

의 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문제가 전면에 나선 지금 대결상태를 가시는데 선자적인 판심을 돌려야 한다. 북과 남이 그 어떤 대화도 없고 긴장만이 감도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통일을 지향해갈 그의지말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국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공동의 리익을 도모해나갈 때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다. 나아가서 서로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자기들

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북남관계의 현 사태를 당장 끝장낼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해설본부가 올해 설명절을 맞으며 《민족화합, 민족상생의 실낱을 맞자》는 특별성명을 발표한것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해설본부는 특별성명에서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행위를 계기로 2008년에 계속되어온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 및 7. 4공동성명을 리해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끝장냄으로써 민족의 해분을 안아오라고 호소하였다. 특히 해설본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통일대학》을 고사하고 인류가 공멸할 판이라고 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의 성의있는 제안과 요청에 정중도 대답없이 하며 서해의 열섬수역에서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그것을 평화적대결로 만들것을 제안하였다. 겨레의 이 절절한 요구에 대답해야 할때는 왔다.

우리 민족에게 외세에 의하여 지속된 대결상태를 자체의 힘으로 해소할수는 뚜렷한 방도도 있고 훌륭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

북과 남은 이미 7. 4 공동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공동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채택, 발표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도 마련하였다. 새 세기 민족공공의 통일대양인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가리키는 대로 한다면 대결상태의 해소와 북남관계개선은 문제로 도 되지 않는다. 력사적인 평양수상봉

회 결손

영국선군정치연구회와 주체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과의 회담에서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B-52》핵전략폭격기 판대륙을 조선시해 상공에 들어갈 때에 조선에 겨냥한 핵타격연습에 들어가게 하였다.

핵전략폭격기로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떠드는것은 미국의 교활한 팽팽술책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주체의 조국인 조선을 반대하는 미국의 온갖 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침략전쟁수단을 선전책략이라고 두둔하고있고 핵무기의 인본론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천명된 조선의 원칙적

과 6. 15 공동선언의 채택과 함께 우리 겨레는 반세기이상에 달하는 북남대결시대를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로 급진화시킨 전례를 가지고있다.

북남관계가 계속 악화되는가 아니면 개선되는가 하는 중대한 력사적시점에서 동족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데 따라 애국과 애국이 갈라지게 된다. 우리가 국방위원회와 조선당국에게서 동족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데 따라 애국과 애국이 갈라지게 된다. 우리가 국방위원회와 조선당국에게서 동족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데 따라 애국과 애국이 갈라지게 된다.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는 내외에 천명한다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공상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5개 시의 열점수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될수 있는 사소한 군사적대결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에 들어섰다. 특히 얼마전에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행사 개최문제도 기대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 주었다.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적조치들은 온이 나아 왔다. 그것만이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다.

이제 더이상 우리 민족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대결하는것은 력사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저주받을 일이다. 온 민족이 북남관계개선을 마라고있으며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최 철 손

# 결출한 사상리론가

남조선의 강연대학교 교수는 어느 한 토론회연단에서 학생들에게 《인류사적적지에서 볼 때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운데서 가장 큰 업적은 주체사상을 가장 위대한 철학사상으로 정식화하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울과 경기도일대에서 《21세기와 지도자》라는 책이 널리 보급된적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업적과 혁명업적, 특출한 령도력을 수록한 이 책을 탐독한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 같이 《김정일영도자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21세기의 위대한 대양이시다.》, 《김정일영도자님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업적을

성취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책을 읽고나서 감명을 피력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정을 터지쳤다. 《세주국의침략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도리어 역전의 기회로 삼아 화를 복으로 전환시

다.》

김정일장군님은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 경도의 천재

키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탁월한 령도력과 비범한 통찰력, 고강한 결단은 오늘날 북이 구가하는 자랑찬 승리를 가져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백승의 령도로 천출명왕으로서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참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시야말로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령도의 천재이다.》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배후신 김정일영수님의 광복정치는 참으로 천하를 엮고 천하를 움직인 사랑의 정지였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성인 이신 김정일영수님을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흔에 새기고 구부로 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본사기자

# 위대한 강령의 탄생을 알린 력사적선언

국제사회계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판에 기초한 주체의 강령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히시고 인류해방투쟁의 세 력사를 펼쳐주시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로동당이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일찍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합에 대한 사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김일성주의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인류자주적업실현의 강령적지침으로 더욱 발전추진되였다.

에리트론 《알 라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주체의 철학정리리에 기초하고있는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은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

# 국제사회계가 격찬

데 대하여 천명하시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합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향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인류자주적업실현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강령의 탄생을 알린 력사적인 선언이었다.

이제 로동당이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오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천명하게 이끄시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속에 조선사회는 하나의 사상, 김일성주의로 일체화

되고 조선인민은 자주적이며 힘 있는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오스트리아 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는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오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천명하게 이끄시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회와 주체사상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조작 《온 사회의

# 조선의 원칙적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여러 나라 단체, 인사 성명, 담화 발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은 하나!  
양기는 제 소굴로 돌아가라!

인도네시아 다당성당 전국지도자회의 총위원장 누르민 브르노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총재제안을 지지하여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총재제안과 공개서한에 단마르드단체와 쿠웨이트인사회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다만드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진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전쟁을 방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제안을 남조선당국에 보냈다.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 중국의 교부 대변인 일본의 불순한 기도를 단죄

중국의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불순한 기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얼마전 일본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가입시마

로써이와 모스크바에서 7일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된 이날의 시위에는 국가회의 대의원들과 평방공산당성원들,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젠 쏘련과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 12일자 사설에서 일본언론계의 력사부정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 새형의 조류독감바이러스 발견

최근 중국의 의학자들이 사람

그들은 얼마전에 사망한 73살 남 녀성의 피와 점액분비물에서 많은 돌림감기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대핵산을 해독한 다음 유전자구조를 연구하였다.

결과 발견된 비루스가

영국에서 큰 불피해

# 반미시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개발을 흔들면서 우크라이나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부추김질에 히

이 한사코 력사적사실을 뒤집어 쓰려고 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신문은 일본의 각료들이 그러한 망언들을 개인의 견해로, 《언론의 자유》로 밀어내려는것은 용서 않다고 규탄하였다.

항의 집회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14일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내외의 비발치는 저주와 규탄을 모면하기 위한 한갖 술막공질에 불과하다.

미국의 속심은 판데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의 이번 행동은 어떻게 하든 정량추문사건을 무마시키고 앞으로는 더욱 융용하고 음해된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량모략책

# 평화적책권리를 수호할 립장 강조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의사업담당고령 알리 아크바르 벨라아티가 7일 이라나통신사의 회견에서 나라의 평화적책권리를 수호할 립장을 강조

하였다.

지금 미국의 판리들속에서 이란에 대한 저속한 망발들이 계속 튀어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곧 핵문제에서

정량추문사건으로 세계에 서 특특히 망신당한 미국이 그것을 수수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무사 국가안전보장국 《개혁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앞으로 《테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정보수집범위를 축소하고 획득한 정보의 판리를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또한 긴급한 국가안보상의 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과 동맹국지도자들에게 대한 감청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은 이번 《개혁안》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것을 강조하지 않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정찰위성들은 종말 모스크바를 감시하였으며 미국간첩들은 크레믈린궁 내부에까지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었다. 이러한 방대한 도청망을 리용하여 미국의 이번 조련의 력대 정치구회들의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도청대상은 줄어들것이나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 미국가안정보장국의 기만적인 개혁놀음

미국이 개혁을 시인하는것으로 판다고 말하였다.

이런 성과와 정보는 정부와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이며 그러므로 그는 이란은 자기의 핵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개혁을 시인하는것으로 판다고 말하였다.

이런 성과와 정보는 정부와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이며 그러므로 그는 이란은 자기의 핵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개혁을 시인하는것으로 판다고 말하였다.

이런 성과와 정보는 정부와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이며 그러므로 그는 이란은 자기의 핵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개혁을 시인하는것으로 판다고 말하였다.

이런 성과와 정보는 정부와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이며 그러므로 그는 이란은 자기의 핵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개혁을 시인하는것으로 판다고 말하였다.

이런 성과와 정보는 정부와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이며 그러므로 그는 이란은 자기의 핵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개혁을 시인하는것으로 판다고 말하였다.

# 전연병피해

에리트론에서 A(H1N1)형 돌림

감기가 퍼져 인명피해를 입고있다.

9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이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18명의 신형독감환자가 발생

하였으며 그중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남을 속여 제 리익을 채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는 미국은 저들의 고약한 행태로 세계의 모든마를 맞고 완전히 고립배격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밀한 정량활동을 엄로 하는 미국가안정보장국과 같은 모략의 소굴이 그냥 남아있는 한 미국이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그것이 장성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정인을 차리고 음모의 본산인 모략기관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본사기자 라명성